

# 방화가 증가하고 있다

문영수  
(본협회 위험관리부)

<지난호에서 계속>

## 나. 방화 대책

방화의 대책에는 다른 일반 화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방 대책과 사후 대책이 있다.

사전 예방 대책은 앞에서 설명한 방화의 동기와 기회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 대책으로는 범인의 검거에 따른 적법한 형량의 부과, 보험금 지급상의 문제, 화재 확산의 방지 및 진압 등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 1) 사전 예방 대책

방화의 동기는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문제로써 동기 자체를 방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예방 대책은 자연히 기회와 방지로 귀결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외부 보안

외부 보안은 방화범의 건물 진입과 옥외 방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다. 이러한 것으로는 출입자의 통제, 진입로의 통제, 출입수단(담, 외벽, 문이나 창문 등)의 통제 및 경비, 순찰 등이 있다. 이러한 건물 진입 통제는 그것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시행될 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입 통제 방법외에도 열쇠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건물 주위의 인화성 물

질이나 건물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의 제거, 적절하고 충분한 조명의 확보와 유지 등과 같은 요인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내부 보안

내부 보안은 방화행위의 기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내부에 상시 관리인의 배치, 각 실의 개폐 통제, 인화성 물질의 제거 또는 충분한 이격 거리에 의한 배치, 쓰레기의 정기적이고 철저한 수거, 이들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일상 점검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 예방 설비의 설치

이러한 것으로는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등이 있다.

### 2) 사후 대책

올바른 사후 대책은 결국 방화의 동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예방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전예방 대책은 건물 소유주의 철저한 의식과 관리가 비중이 큰 반면 사후 대책은 건물 내에 충분하고 적절한 방재설비의 설치와 소방서의 소방 능력 등과 같은 화재 확산의 방지와 진압적 측면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범인 검거와 그에 따른 형벌의 집행,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 등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것이 모두 유기적으로 협조되어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완전히 건물이 붕괴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사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조사를 통해 발화지점 뿐 아니라 발화원인이 화재라는 것도 밝혀 냈다.

### 가. 화재 확산 방지와 진압

이것은 일반 화재의 경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나 방화의 경우 가솔린과 같은 촉진제가 사용되고 또한 여러 부분에서 발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 확산의 방지와 진압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소방서 및 자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 계획을 미리 사전에 수립하여 만일의 경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범인의 검거와 형벌의 집행

방화 조사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방화범에 대한 형벌 규정을 알아 보기로 한다. 미국 등 몇개 국가의 형벌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프랑스의 경우 최고 사형으로 되어 있는 규정은 1981년 이후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 명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보험 사기	기 타
미 국	2개월~10년	좌 동	1년~5년	1년~10년
영 국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프랑스	최고 사형	최고 사형	5년~10년	2년~중신형
독 일	최고 중신형	1년이하의 징역	6개월~10년	좌 동
캐나다	최고 중신형	최고 14년	5년~14년	최고 14년

### 다. 보험 회사의 역할

방화에 대한 가장 큰 관심과 자료 및 정보를 가지

고 있고 또한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보험 회사이다. 보험 회사가 방화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정확한 통계 자료의 작성이다. 이러한 자료는 방화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보험인수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보험 인수 시에는 물건의 업종별, 유형별, 장소별 방화통계 자료와 해당 물건의 관리 상태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정 요율의 부과 내지는 특약 담보 또는 인수 거부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통계 자료의 작성은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단일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 능력이나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ICAC(insurance committee for arson control)은 미국 보험 협회(AIA) 등 10개 보험 회사와 보험 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방화 연구단체로 회원사들에게 방화통계, 방화 조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대중에 대한 방화 방지의 계몽과 교육이다.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화재 예방은 물론 보험 회사 자체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세째, 방화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전문가의 육성이다. 이것은 보험 인수 및 이재 처리시 보험 회사의 수익과 관계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보험 인수와 이재의 적절한 처리로 보험 회사 자체에 기여함은 물론 소방서나 경찰서에 방화조사 자문 역할도 가능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서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여 보험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화재통계 중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방화분야의 전문가의 육성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동 체제의 구축이다. 예방 홍보활동이나 화재 조사시 보험회사와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는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 회사를 주축으로 보험 계약자와 관계 당국과의 유기적인 삼위일체는 방화방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며 이러한 것은 1982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방화 건수가 급격히 감소된 사례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